‘땅은 역시 가나안땅입니다’

(여호수아 14:1~15)

1.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3.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땅은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땅은 역시 가나안땅입니다’

통일에 대한 중요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하는 분들이 언론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북한 사람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전적으로 남한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박 근혜 대통령이 연초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개발 가능성,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관광자원과 지하자원, 교통의 요지로서의 중요성을 모두 남한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등에서 남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거리는 이북의 어느 지역의 땅을 미리 사두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가 되느냐는 것인데, 부동산 투기를 먼저 생각하는 관점에서 통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만해도 이렇게 물질에 먹히지는 않았었습니다. 한 민족이고 한 혈통이기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땅 투기를 생각하고 대통령까지도 재정적인 이득을 생각하며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통일이 대박’이라는 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통일이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하나의 민족이고 이북 주민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적인 면이 가미되어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섭

리를 통일로 연결시켜서 소원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땅 투기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근성이 엄청납니다. 그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단지 정말 투자할 만한 땅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땅은 역시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땅 중에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복해야 합니다. 이미 정복된 곳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제 정복할 땅까지도 제비뽑아 분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분배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땅을 소유하고 사는 내 땅을 받게 된다는 선민들의 기업분배를 제비뽑기로 하게 된 것은, 내가 받게 되는 땅이 우리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순수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내게 주어질 땅이 산지든지 평지든지 비옥하든지 척박하든지 물가든지 내륙이든지 돌밭이든지 숲이든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잘하고 못함의 공과를 기준으로 좋은 땅과 나쁜 땅을 주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을 할 때에 앞장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무기만 정리만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다보니 공이 많은 사람이 척박한 돌밭을 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한 사람에게 좋은 땅이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받은 사람은 좋겠지만 나쁜 땅을 받은 사람은 속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선민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 받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의도와 호불호가 완전히 배제되는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한이 맺힐 만큼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오는 제비뽑기가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나는 왜 미국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공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다 영어공부를 해야 합니다. 90년대에 독일에 갔더니 나라가 너무 아름답고 모든 동네가 공원 같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왜 독일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가족들이 탈북하다 헤어지고 죽고 매 끼니를 강냉이 죽으로 때우며 살아야 하느냐?'라고 합니다.
장 동건 씨가 서울대 박사도 아니고 힘이 센 것도 아닌데 재산도 많고 부인도 아름다운 고 소영 씨를 얻었습니다. 장 동건 씨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외모 때문입니다. 그걸로 평생 동안 인기와 명예와 돈을 얻고 사는 걸 보면 눈이 뒤집힐 지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 동건이고 김 태희인데 왜 나는 평범하다 못해 못생기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렇듯이 제비뽑기는 내 의도가 포함되지 않는 결과를 내가 얻는 것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레위인의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갈렙 이야기가 따라 나오면서 땅 분배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를 선민들도 갖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따라 붙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식축구장 안에서 와이드 리시버가 적진에 있는 엔드 존을 향해 뛰어가서 쿼터백이 던져준 공을 잡아냅니다. 레위인이 땅 분배를 받지 못하고 열두 지파를 따라 흩어지는 이유는, 그곳이 척박하든 기름지든 상관없이 선민들에게 첫째 과제인 하나님을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인들은 선민을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 들이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만 받아내면 그곳에서 복지를 살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에덴 됨은 과일나무가 많고 강이 네 근원으로 흘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덴이었던 것인데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렙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갈렙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가데스바네아 사건 때에 40세였고, 광야 40년 세월에 5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85세가 되었습니다. 정탐사건 때에 "다른 열 명의 정탐꾼들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고 좌절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을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니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을 그에게 주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갈렙이 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제비뽑기가 아닙니다. 85세의 연장자이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자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정복된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요구할 만 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이 '산지'는 45년 전에 이스라엘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했던 거인족인 아낙자손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노인이 이제부터 정복하겠다며 가장 척박하고 골리앗 같은 족속이 존재하는 그 땅을 달라고 하는데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땅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땅에서조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민과 함께 하시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와이드 리시버가 가장 강력한 수비수들이 몰려있는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어서 쿼터백이 던지는 공을 받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상식에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받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갈망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땅 분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내가 못생기게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은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부잣집에 태어난 것이 훨씬 더 불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된 욕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고 싶고 먹고 싶을 때마다 다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고, 장 동건 씨나 김 태희 씨처럼 예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고, 천재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이 열 발자국을 뛰어야 할 때에, 한 발자국이면 될지라도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지금의 내 환경과 조건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 좋거나 나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리대로 보자면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척박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타개하고 세계 제일의 국가인 미국을 이끌 때에 휠체어에 앉아서 이끌었던 것과 같습니다. 요셉은 죄인으로 갇혀있다가도 하루아침에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받아낼 수만 있다면 이 척박한 현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말하는 85세 노인의 마음에는 이 관전 포인트가 분명했던 것입니다.
눈먼 땅을 발견해서 싸게 사고, 북한의 땅을 투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땅은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제비뽑기로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갖고 누리는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은 오늘날로 환원시킨다면 무엇일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이제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치부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신 일도 가나안 정복을 하신 것인데, 그 가나안 정복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들’이 열두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모든 선민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 묻혀서 그 마음이 이 세상에서 거인족에게 지배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인족’은 도저히 이겨내기 힘든 것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마음들인데, 돈이고 가족이고 부모이고 배우자이고 자녀이고 형제자매이고 건강이고 이 세상의 소중한 가치와 존재들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게 허락한 헤브론 산지가 있습니다. 구약 때에는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지리적인 공간을 향해 전쟁이 치러졌지만, 주님이 오신 뒤로는 그 땅이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과 모든 조건들과 내 생김새까지도 제비뽑아 주어진 가나안 땅입

니다. 이 주어진 땅에서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받아내서 복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젖과 꿀처럼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산지와 같은 미정복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낙자손들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받아냄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아낙자손을 물리치시고, 당신의 사람으로 약속된 땅으로 회복시키심으로서 선민의 관계가 확장되어 갑니다. 이것이 내게 주시는 영토이고 내게 주신 사람들이므로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갈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헤브론 산지로 여겨서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 속에서 선택받은 자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시원찮은 회사를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서 선택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던 아낙자손이 쫓겨날 것이고 하나님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 중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들어가는 동안에, 현실에서의 모든 문제들인 땅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직장 등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전략과 계획에 의해서 필요하면 오고 가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고 가나안 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돈이라는 아낙자손이 엄청납니다. 마19: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낙자손을 만날 때 부자라서 마음이 돈에 지배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와이드 리시버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헤브론 산지라는 것이지요. 그런 관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살다보면 돈 문제, 동산, 부동산 문제 등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략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기도 하고 안 주어지기도 하고, 있던 것이 나가기도 하고 없던 것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은 뭐니 뭐니 해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투자하실 마음을 스스로 나무라실 필요 없고 투자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관전 포인트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 내게 주

시기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들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복하여 확장해 나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